곡성군, 환경부와 도시생태복원 25+ 업무협약 체결

2022년까지 80억 규모 동악산 생태축(서식지) 복원사업 추진 협력 다짐

"환경자원 간 연결성 강화·환경보전 긍정적 메시지 전달 계기되길 기대"

곡성군이 19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 대회의실에서 환경부, 7개 지자체,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한국생태복원협회와 '도시생태복원 25+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환경부 그린뉴딜 사업의 일환인 동악산 생태축(서식지) 복원사업 등 도시생태복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체결하게 됐다.

협약을 통해 환경부는 예산과 제도적 지원을 하게 되며, 각각의 지자체는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학회와 협회는 자문을 수행한다.

곡성군은 도시생태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80억 원(국비 56억 원, 군비 24억 원)을 들여 동악산 생태축(서식지) 복원에 나서게 된다.

곡성읍 묘천리 일원에 생태통로, 생태숲, 생물 서식지 등을 복원 및 조성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를 통해 녹지축과 수생태축의 연결성을 강화해 생물다양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동악산 생태축(서식지) 복원사업이 환경자원 간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환경 보전과 복원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군민들에게 전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곡성군은 2016년에 국가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섬진강침실습지에 대해서도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훼손지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곡성군은 동악산 생태축과 침실습지를 연계함으로써 주요 생태관광 명소로 발돋움시킨다는 계획이다.

곡성=양해영 기자

2021년도 유기질비료 '우리 지역 제품' 사용

화순군, 지역제품 사용 유도

화순군이 유기질비료 공급 사업과 관련 화순 지역 유기질비료 생산 업체의 점유율 제고를 위해 '차등 지원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군은 2021년도 유기질비료 공급 사업에서 화순 지역 업체의 제품을 사용하는 농가는 우대지원하고, 를 우대하고 다른 지역 업체의 제품을 사용 농가에 대해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지역에서 생산된 가축분 퇴비 관내 농가 공급 물량은 25%, 유기질비료 포함 전체 공급률은 27%로 전라남도에서 최하위이고, 다른 지역 업체의 공급 점유율 증가하고 있다. 다른 지역 제품 공급률이 전체 7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다른 지역 업체의 점유율 증가 등으로 초래된 지역자본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의 축산농가 분뇨 처리 문제까지 함께 해결하기 위해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군은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으로 제품에 제한 없이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가축분 퇴비 특등급의 경우 국비 지원금의 100%를 군비로 정액 지원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지역 제품 사용 농가는 국비 1000~900원, 군비 1000~900원을 정액 지원한다. 다른 지역 제품 구매 농가는 군비 부담액을 정액분 600~700원(20kg/포)만 지원하고 식량 작물, 친환경, 원예 특작 분야 군비 자체 사업도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화순 지역과 전남도 내 생산제품이 없는 가축분 특등급만 다른 지역 제품 구매 농가도 지역 제품 사용 농가와 같은 금액을 지원한다.

이미 담양군, 곡성군 등 다른 시군에서는 지역 제품 사용 농가를 우대지원(타 지역 제품 사용 시 패널티 부여)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대지원으로 지역 제품 구매율이 대폭 상승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관내 생산량이 공급량보다 부족한 실정으로 농가별 전체 신청량 중 일부 물량에 대해서는 도내(전라남도) 제품 신청을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제품 우대지원으로 지역 생산 제품의 구매율이 높아지면 가축분 퇴비 생산 업체에서도 품질 개선과 생산 시설 개선에 재투자해 양질의 퇴비 생산을 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도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신청(기간 11월 9일~12월 8일)은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화순=박순철 기자

나주시, 양성평등 기념식 개최

관내 21개 여성단체 참여 권익증진·사회참여 확대 도모

나주시는 지난 18일 국립나주숲체원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 도모를 위한 '양성평등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나주시 여성단체협의회(회장 조은희)에서 주관한 이날 기념행사는 관내 21개 여성단체회원 70여명이 참여한

유공 표창 시상 등 불평등 연극 공연도

가운데 양성평등을 주제로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 생활 속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힘쓴 유공 표창 시상 등으로 구성됐다.

기념식은 식전 시니어, 여성단체 회원들의 난타, 율동, 아코디언 연주로 분위기를 돋운 뒤 1부는 유공 시상식과 내빈 축·격려사가, 2부에서는 양성평등 이해를 주제로 일상에 만연한 남녀 간 성차별, 불평등 문화를 풍자하는 내용의 연극 공연이 펼쳐져 열띤 호응을 얻었다.

조은희 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시기에도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을 모아준 여성단체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지역 여성 리더로서 양성 평등의 여성친화도시 나주 구현에 적극 일조해가겠다"고 밝혔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남녀 시민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해갈 것"이라며 "이번 양성평등 기념식이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진정한 의미의 여성친화도시 구현에 한 발짝 다가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기동취재본부

곡성군, 할머니 화보 모델 화제

보그코리아 9월호, 시골 사는 100세 전후 8명 모습 담아

사진 출처 : VOGUE 코리아

전남에 거주하는 할머니들의 화보를 담은 보그 코리아 9월호가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7월 여성 잡지 VOGUE 코리아는 시골에 사는 100세 전후 8명의 할머니 모습을 촬영했다. 완성된 사진은 패션잡지 VOGUE코리아 9월호에 실렸다.

할머니들의 얼굴에서 희망을 발견하자는 촬영 콘셉트처럼 화보 속 할머니들의 모습에서는 따뜻함이 물씬 묻어난다. 반듯한 포즈와 쑥쓰러운 미소를 머금은 표정은 오랜 세월 쌓인 주름과 어우러져 편안하고 자연스럽다. 손에 들고 있는 꽃은 우리의 삶이 특정 시기에 반짝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갈수록 원숙하고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조화를 이룬다.

촬영은 구곡순담 장수벨트행정협의회에서 요청에서 시작됐다. 구곡순담 협의회는 전국 10대 장수군 중 지리산권에 속하는 구례군, 곡성군, 순창군, 담양군이 2003년 구축한 공동협의체이다. 주로 장수고장으로서의 지역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협업을 진행한다.

패션잡지 VOGUE 코리아는 할머니들의 자택을 직접 방문해 일상의 모습을 담으려 했다고 한다. 곡성군 겸면에 거주하는 하남순 할머니는 구수한 사투리로 "워매~ 이 늙은 사람을 찍어서 뭐한당가"라고 부끄러워하면서도 촬영 내내 웃음이 가득했다는 후문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사진을 본 사람들에게 깊은 여운까지 줄 수 있어서 기분 좋은 작업이었다. 할머니들의 건강을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곡성=양해영 기자

구례군, 한국판 뉴딜사업 대응 직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신판용 원장·이호선 역량개발실장 초청 직원 80여명 대상

구례군은 지난 1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한국정책역량개발원 신판용 원장과 이호선 역량개발실장을 초청해 간부공무원 등 직원 8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판 뉴딜사업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비확보 및 공모사업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킴과 동시에 중앙 부처의 공모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자 2021년 16개 정부 각 부처별 주요 국비지원사업, 정부 핵심정책인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뉴딜 사업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2021년 정부예산안과 균형발전의 핵심정책인 '지방균형뉴딜'에 대한 정밀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각 부처별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 기자